

## 현직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들의 교회 장애인부서 교사로서의 봉사경험과 지원요구 탐색\*

Exploring the Experiences and Support Needs of Current Special Educators  
and Social Workers Working in Disability Ministries in Churches

김기흥 (Ki Heung Kim)\*\*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s and support needs of current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social workers serving in a church department for the disabled. Accordingly,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research subjects in Busan, Daegu, and Gyeongnam reg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7categories and 14sub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experiences of the research subjects. In addition, two categories and four subcategories emerged from the research subjects' support need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wo discussion points were presented. First, the research subjects appeared to have limitations in demonstrating their expertise due to the church's environmental restrictions. Second, the church must establish a firm awareness and commitment to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in its ministry to the disabled. In other words, a deep discussion is needed about the legitimacy of the church's ministry to the disabled,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ministry to the disabled, and the methods of ministering to the disabled.

**Key words:** church, department for the disabled, special education teacher, social worker

\* 2024년 5월 7일 접수, 6월 1일 최종수정, 6월 3일 게재확정

\*\* 부산교육대학교(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유아교육과 교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koelinkim@bnue.ac.kr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장애인은 모든 나라와 시대에 있었고, 그들은 사회로부터 다양한 도움을 필요로 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일원임에도 통합이 일어난 지는 긴 인류사 중에 겨우 반세기를 지나고 있는 실정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장애아 살해는 용인되었고, 당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장애아 유기에 동의하였다. 또한 ‘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조차도 장애인이나 불치병 환자는 치료불가로 여기고 이들에 대한 의료행위에 반대하였다. 장애인들은 특히 신이 보낸 불운으로 보고 구타를 당하며 도시 밖으로 쫓겨났고, 이는 신의 노여움을 달래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때로는 살해의 대안으로 노예로 팔리거나 연시(年市)에 구경거리로 전시되었다. 또 장애인이 구걸할 때 많은 동정심과 수입을 위해 주인은 심한 신체적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Mattner 2000: 32-35).

중세에도 장애아에 대한 살해, 학대 및 매매 행위는 합법적이었지만, 이웃사랑이라는 중심교리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의 확산과 함께 빈자에 대한 구호활동이 시작되었다. 사실 교회가 장애인, 병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사회적으로 법적 조치나 복지실천을 통해 장애인의 삶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장애가 하나님의 형벌이나 귀신들린 자 등으로 이해하는 태도도 여전히 팽배했다. 루터(Luther)조차도 기형아는 사탄에 의해 대체된 ‘영혼 없는 육체 조각’이라 여겨 출생 후 살해를 옹호할 정도였다. 대부분 장애인들의 생계 수단은 구걸이었고, 곡예단과 함께 돌아다니며 스스로 ‘비정상인’으로 보고, 주변으로부터는 ‘불구자’로 취급받았다(김기흥, 2020: 173-175).

중세에 질병과 장애는 귀신 들리거나 죄의 결과 등 종교나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한 반면, 계몽주의는 이를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합리적, 과학적 객관성과 사실성을 강조했으며, 치료나 교육을 위한 병원과 각종 시설이 설립되었다(Lena, 2008: 41-42).

19세기 산업화 시대는 도시화가 시작되어 대가족 구조가 해체되고 가족 내의 보살핌이 더욱 어려워 많은 장애인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였다. 그 중 전쟁 부상자는 보호 속에서 노동 시장에도 재통합되었지만, 일반 장애인들은 사회적 문제로 보고 교육, 노동, 의료혜택 등으로부터 제외되어 열악한 환경 속에 살기도 했다.

또 20세기 초기에 장애(인) 관련 연구는 장애의 원인과 발달 특성에 특히 중점을 두었다. 또 경제 호황으로 인해 국가는 성과와 수익성을 중심으로 고용정책을 펼쳤고, 장애인을 돌보는 교회기관도 치료와 직업재활 업무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장애아들이 처음으로 공교육에 참여 했지만, 비장애

아동과는 엄격하게 분리되었다. 이때 독일에서 장애인들은 '지체장애인자조협회'를 결성하고, 1917년 정부는 차별적 용어인 '불구자'를 '지체장애자'로 대체하는 긍정적 변화도 나타났다(Christian & Udo, 2014: 48- 55).

한편 나치시대는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이념 아래 장애(인)를 약점으로 간주하여 제거 대상이 되었다. 장애인들은 강제 수용소, 병원과 시설 등에서 실험용으로 이용되어 19세기 말보다 훨씬 더 비참하였다. 결국 노동, 학습 및 치료 불가능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은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분류되어 강제적으로 불임시술과 안락사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희생되었다(김기홍, 2020: 182-18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에 장애인은 제외되었는데, 196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장애인 자조단체나 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어서 1989년 11월 20일 UN 총회에서 장애아동이 포함된 아동권리협약과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적 참여를 통해 차별과 불이익을 방지하고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기에 이르렀다.

성경에서는 총 160여회에 걸쳐 다양한 장애인에 대한 기사를 찾을 수 있다(이계윤, 1996: 55-56). 성경은 장애인의 존재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거나, 치유나 구원 및 사회 통합적인 삶에서 배제하거나 차별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구약성경에서 장애를 차별이나 죄의 결과 등의 부정적인 시각(레 21: 16-23; 창 19:1; 삿 16:21 등)도 일부 있지만, 동시에 보호나 소망의 대상 혹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레 19: 14; 신 27:18; 사 35:5-6 등)로 보기도 한다. 신약성경은 기독교의 장애인에 대한 본질적인 사상과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치유와 보호 및 사랑(요 9:3; 막 9:23 등)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환자나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치유사역이 총 56곳 정도로 매우 빈번하게 보인다(김기홍, 2023: 56).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핵심 세 영역은 전도, 교육 및 치유였으며, 가난과 질병과 배척의 중심에 있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신 주님의 사역은 가장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천상화, 2010: 14).

우리나라의 근대식 특수교육과 교회 내 장애인 교육은 1894년 의사였던 홀(R. S. Hall)여사와 1930년경 승동교회에 맹인부를 설치한 북장로교 소속의 코엔(Coen) 등 주로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영락교회(1946년)의 농아부, 하나님의 성회(1960년) 소속의 에바다 농아교회, 남산침례교회(1967년)의 맹인부, 최초의 지체장애인 교회인 신망애 교회(1981년), 1984년 한국밀알선교단과 서울 소망교회의 소망부, 1992년 사랑의 교회의 사랑부, 1993년 명성교회의 소망부 등이 설치되기 시작했다(남현주, 2015: 20-25 ; 최대열, 2015: 10-15).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회학교 운영은 전체 38,249개 교회 중에 겨우 73개 교회(약 0.2%) 정도로 나타나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매우 낮은 관심도를 알 수 있다(한창희, 2016: 41-43).

교회 장애인 부서 관련 주요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설문조사였으며, 또 모든 연구는 봉사하는 교사들의 전공(특수교육/장애인복지 등)과 비전공 집단 간 비교나 구분 없는 조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연구결과들을 보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여건 등 환경면에서 여전히 열악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회 장애인 부서 교사들은 현실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먼저 장애인을 담당하는 교사의 의식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학생에 대한 지식, 이해 및 지도방법의 부족이며, 이는 비전공 그룹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김요섭, 2007: 174-176). 또한 임창덕(2007: 84-85)과 윤경일(2017: 58-59)의 연구에서도 현실적으로 교사 스스로 장애인에 대한 특성이해, 지식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지도의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부서에 봉사하고 있는 교사들 중 장애(인)관련 학과를 전공했거나 전공중인 교사집단, 교육 및 연수에 많이 참여한 집단이 효능감과 아울러 학부모와의 협력적 활동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의 전문적 자질함양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기홍(2017: 59)의 장애인부서 교사들의 통합교육 관련 인식에서도 사랑이나 헌신, 열정 등 인간적 자질은 매우 좋다하더라도 (특수)교육적 또는 사회 복지적 소양과 역량 등 전문성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회 장애인 부서의 운영과 발전은 이들 전문가적인 자질 외에도 담임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차원의 관심과 지원, 물리적 환경 등 여러 요소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교육계의 오랜 전통적 격언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볼 때 교사로 봉사하는 자들의 역량과 자질은 교회 내 장애인 부서의 본질적 목적 실현에 필수적인 기초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교육이나 사회복지기관에 재직하며 장애인 부서에서 봉사하는 현직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장애인 부서 운영에 관한 경험과 요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학령기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주 교육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사와 학령기 이후 성인 장애인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등 주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교회 장애인 부서 운영에 대한 인식과 경험들을 살펴보는 것은 교회의 장애인 사역의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는 바이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에 재직 중이며 동시에 교회 장애인부서에서 교사로서의 활동을 통한 경험은 어떤 것이 있는가?

둘째, 현재 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에 재직 중이며 동시에 교회 장애인부서에서 교사로서 장애인부서 운영과 발전을 위한 지원 요구는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부산, 대구, 경남 지역의 현직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이며, 교회 장애인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는 6명의 교사들이다.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은 아래 <표 1>과 같다. 먼저 직업별로는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 각각 3명이며, 성별로는 여성 2명, 남성 4명이었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43세로 나타났고, 주일학교 교사경력은 평균 8년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장애인 부서에 학령기 아동은 매우 소수이며, 성인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부서의 전체 교사 중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의 비율은 약 9%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명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개인의 성(姓)의 영문 이니셜로 처리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research subjects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세)	경력(년)		지역·소속교회(교단) 교회규모/장애인 수/교사 수(명)
			교회 장애인부서	현 재직기관 (직종)	
교사 K	남	48	5	3(사회복지사)	대구 D교회(기타) 1,000/15/9
교사 L	남	57	6	11(사회복지사)	경남 J교회(성결) 1,500/14/8
교사 H	여	28	10	5(특수교사)	부산 P교회(고신) 7,000/47/23
교사 P	남	43	12	15(사회복지사)	대구 S교회(합동) 1,500/55/45
교사 G	여	41	8	12(특수교사)	부산 B교회(통합) 1,500/50/50
교사 C	남	40	6	3(특수교사)	부산 S교회(합동) 400/30/16

## 2. 면담 도구

본 연구는 현직 학교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로 있으며 동시에 주일학교 장애인 부서 교사들에게 개별적인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면담지는 먼저 장애인부서 교사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임창덕(2007: 76-83), 인식이나 태도에 관하여 알아본 김요섭(2007: 174-177), 윤경일(2017: 58-65) 및 김기홍(2017: 56-60) 등의 연구결과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그리고 예비면담 질문지 작성은 관련 전공 교수 1명을 통해 타당도 검토를 실시하였고, 또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인부서 교사 2명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면담을 통해 불분명한 문장이나 용어 등을 수정·보완 작업 후 반 구조화된 면담지를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을 위한 주요 질문 내용은 <표 2>와 같다.

Table 2. Content of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partial example)

Example detailed question cont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사항(성별, 연령, 재직기관, 경력 등)</li><li>• 어떻게 장애인부서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까?</li><li>• 장애인부서 교사로 언제 가장 기쁨을 느끼니까?</li><li>• 현직 특수교사/사회복지사로 장애인부서에서 봉사할 때 다른 교사에 비해 좋은점이 있다고 봅니까?</li><li>• 장애인부서는 장애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li><li>• 장애인부서 교사로 힘든 점이나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li><li>• 장애인부서 교사로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li></ul>

##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24년 3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약 5주에 걸쳐 개별적인 심층면담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조사 대상을 서로 추천하는 방법인 눈덩이 표본 추출(Snowball Sampling)방식이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동의하는 자, 둘째, 현재 장애인부서의 교사이자 현직 특수교사 혹은 사회복지사인 자, 셋째, 장애인부서 교사나 현직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 경력이 각각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정하였다.

또 개별적인 심층면담은 사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구체적인 연구주제나 방법, 시간, 목적 등에

대해 알려졌다. 또 연구 참여자들에 관한 개인 신분과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준수할 것을 전하였다. 그리고 면담 일정과 장소는 연구대상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개별 면담을 실시할 때 전체적인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녹음이 되었다. 그 후 녹음된 파일은 면담 후 바로 연구자가 직접 전사 작업을 진행하였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개별적인 심층면담 시간은 전체 341분이었으며, 이는 연구대상자 1인당 평균 약 57분이었다. 그리고 심층면담 결과 총 분량은 A4용지(글자크기 11, 글꼴 신명조, 줄 간격 160, 자간 -10 등)로 약 58쪽 분량이었다. 연구자에 의해 작성된 전사본에는 면담일자, 면담 시간, 면담 장소 등이 표시되었다. 아울러 연구 결과에서 연구대상자들의 면담 내용 중 일부가 인용될 경우에는 면담 참여자의 각 성(姓)별로 영문 이니셜이 병기되었다.

이어 본 연구에서 얻어진 개별면담 전사 자료는 아래 과정들을 통해 분석과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였다(이종승, 2009: 421-423). 우선 녹음된 개별적인 면담내용은 최대한 원본(예, 사투리 등)에 따라서 전사 작업(transcription)을 진행한다. 그리고 연구자는 전사된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정독하며 주제별로 약호화(coding)단계를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전사본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정독을 통해 유사한 단어와 문장은 특정주제를 붙여 범주화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이러한 약호화의 세심한 반복적 읽기, 분석이나 추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을 도출하는 주제별 유목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 첫째, 본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구체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개별면담 시간을 제공하였다. 둘째, 연구내용에 있어서 연구자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의 최소화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전화 및 이 메일 등을 통하여 재검토하고 확인하는 연구 참여자의 검토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관련 전공 교수 1인의 검증을 통해 추가적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었다. 첫째, 면담 실시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 면담을 취소할 수도 있음을 공지하였다. 셋째, 개별 면담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면담 내용이나 참여자들은 익명으로 할 것임을 사전에 설명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현직 특수교사이거나 사회복지사이면서 교회 장애인부서에 봉사 중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통해 장애인 부서의 교사로서의 경험과 지원요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연구대상자들의 장애인부서 교사활동을 통한 경험은 7개의 범주와 14개의 하위 범주, 또 연구대상자들의 장애인부서 교사로서의 지원요구에서 2개의 범주와 4개의 하위범주가 각각 도출되었다.

Table 3. Results of analysis of research subjects' experiences and support needs

대 주제	범주	하위범주
□ 장애인 부서 교사로서의 경험	□ 자발적 동기	• 현재 직업적 특성과 유사하여 자연히 교회 봉사로 연결
	□ 기피 부서	• 이미 직장에서 업무로 지쳐있음 • 장애인 부서의 다른 봉사자들로부터 큰 부담감/책임감을 느낌
	□ 자긍심·보람	• 예배를 좋아하고 질문에 대답을 하며 변화를 보임 • 동료 교사들의 적극적 지지와 격려를 받음 • 장애인 부모들로부터 감사인사를 들음
	□ 전문(차별)성	• 장애인 관련 전문가로서 한계를 느낌 • 교사 개인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 천차만별
	□ 존재 의미 (정체성)	• 예배나 신앙교육이 제일 중요함 • 교회 장애인 부서의 관심과 역할은 확대해야 함
	□ 현실적 장벽	• 장애인부서는 교회적 관심/지원에서 늘 뒷전임 • 장애인부서 교사들의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
	□ 요원한 통합예배: 한 지봉 두 가족	• 통합교육에 대한 교회적 편견/무관심이 큼 • 의도적(계획)이 아닌 의례적 참여허용 수준
□ 장애인 부서 교사로서의 지원요구	□ 교회적 차원	• 담임 목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교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구조적 환경개선이 급함
	□ 부서적 차원	• 장애인 부서에 젊은 교사가 많이 왔으면... • 바텀업(Bottom up)식의 변화 요구



## 1. 장애인 부서 교사로서의 경험

### (1) 자발적 동기

#### ① 현재 직업적 특성과 유사하여 자연스럽게 교회 봉사로 연결

본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나 특수교사들은 장애인부서에서 교사로 봉사를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전공이나 현직에서의 역할과 특성이 유사성과 연속성을 가짐으로서 자연스럽게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저 또한 저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특수교사라면 교회에서도 이 분야를 섬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직업이 교회의 봉사로 이어진 거죠(연구 참여자, H).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공이 사회복지학과이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평상시에는 직업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공적인 것을 가지고 치료나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면 뭔가 내가 직장과 그리고 교회일이 뭔가 같이 이어지는 느낌, 하나가 되는 느낌이라서... (연구 참여자, P).

### (2) 기피(忌避) 부서

#### ① 이미 직장에서 업무로 지쳐 있음

연구대상자들에 따르면, 사실 교회 내에 사회복지사나 특수교사로 현직이 있는 교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들이 장애인 부서의 교사로 선뜻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미 직장에서 업무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아이들을 봤는데, 주일에도 또 해야 하나? 그런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수교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학교에서 아이들로부터 좀 지치고 하니까... (연구 참여자, H).

이미 직장에서 장애인을 돌보고, 돌보고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일은 일이니까 스트레스도 아무래도 많이 받고, 또 일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직장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연구 참여자, P).

② 장애인 부서의 다른 봉사자들로부터 큰 부담감/책임감을 느낌

아울러 교회 내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 부서의 봉사를 꺼리는 것에는 전문가로서 주변으로부터 스스로 과도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사회복지사하면 여기서 뭔가 잘해야 되고, 뭔가 여기서 아무래도 책임감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그러면 더 해야지 두 배 이상 더해야지... 결과를 더 내야 될 수도 있고...(연구 참여자, L).

주변 사람들은 특수교사하시네요! 사회복지하시네요! 그럼 그곳으로 가시겠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그런 것은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한편으로는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좀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고, 저도...(연구 참여자, C).

(3) 자긍심·보람

① 예배를 좋아하고 질문에 대답을 하며 변화를 보임

장애인 부서에서 봉사하는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은 특히 장애를 가진 성도들이 신앙적 행동의 변화를 보이거나 예배 중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 올바른 대답을 할 때 나름대로의 긍지와 기쁨을 경험함을 강조하였다.

예배 시간에 오는 것을 즐거워한다든지, 그리고 와서 굉장히 많이 웃고, 또 재미있어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 때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참여도를 보면...(연구 참여자, K).

애들이 특별히 변하는 것들이 보이지는 않는데, 변하는 모습도 보이고, 애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가끔 정답을 맞추기도 해요. 또 애들 입에서 예수님 하나님, 이런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작은 변화, 오랜 시간 걸렸지만, 이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죠(연구 참여자, L).

② 동료 교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받음

이어서 장애인 부서 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 또한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부심이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제가 부서에서 율동교사로 섬기는데, 약 20분정도 하거든요. 율동이 생각보다 길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사들도 한 분도 소극적이지 않고, 일어나서 따라해 주세요. 협조적인 모습을 볼 때 아,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구나! 라고 느껴질 때, 보람을… (연구 참여자, H).

항상 다른 선생님들이 제가 하는 일에 수고했다! 학교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여기서도 수고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해주시는 것에도 힘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보람을 많아… (연구 참여자, C).

### ③ 장애인 부모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들음

그 밖에도 성도들이나 부모들의 감사 표현은 장애인 부서의 교사들에게는 계속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임을 알 수 있다.

한번은 사랑부에서 했던 성경퀴즈, 그런 것을 금요일배 때 제가 설교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설교를 들은 한 성도님이 성탄 선물을 사랑부에 주고 싶다고 200만원을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무기명으로… (연구 참여자, K).

한 어머니는 저희 이번에 교사 세미나 갈 때도 찬조하시고, 그냥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텃밭에서 기르시는 작물들도 좀 나눠주시고, 가끔 떡을 하셔서 떡도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감사함을 표현하시고(연구 참여자, H).

## (4) 전문(차별)성

### ① 장애인 관련 전문가로서 한계를 느낌

장애인 부서에서 자신이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짧은 예배 및 공과 공부 시간, 장애인교육을 단순히 생각하는 분위기 등 환경적인 한계로 인해 전문가 활용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차별성을 많이 구현하지는 못하죠. 왜냐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한 시간 뿐… 도전행동 발생 시에 저희가 한 번 해보자 하고 시도는 했었거든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긍정적 행동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한계가… 예를 들어 학교 수업환경에서는 제가 주도할 수 있잖아요?(연구 참여자, H).

분반공부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리고 분반공부 시간에 하는 것은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라든지, 이제 활동시간이기 때문에 활동지를 나누어주고 같이 색칠을 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연구 참여자, K).

공과 공부나 이런 시간에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에게 묻는 경우는 드물고, 저는 아직 우리 부서 내에서 특강이나 교사교육을 한 시간은 아직 없었어요(연구 참여자, C).

## ② 교사 개인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 천차만별

또 교회 장애인 부서의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은 특히 공과 공부에서는 자신의 전문성을 일부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교사들은 공과공부나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각자의 (특수)교육적 역량과 자질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에서는 특수교사가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니까 전문성을 온전히 발휘하기가 좀... 공과공부 때 다른 선생님들은 따라 해봐라! 색칠해봐라! 이 정도면, 저는 발화가 안 되는 친구는, 선생님이 읽어 볼 테니 손가락으로 가리켜보자! 발화가 자발화가 안 되지만은 따라 읽기가 가능하다면 한 번 따라 읽어보자! 하고 이 정도는 발휘하고... (연구 참여자, H).

그래도 저희는 교수법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신앙 지식들도 있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새로 오시거나 초신자 분들은 이야기를 풀 거리가없어 조금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죠. 각자 알아서 공과공부를 하는 편이죠. 선생님 각자에 달려있다고 보죠(연구 참여자, G).

## (5) 존재의미(정체성)

### ① 예배나 신앙교육이 제일 중요함

본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 내 장애인 부서의 존재 이유로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의 신앙적 성장을 돕는 일이라고 보았다.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라고 봅니다. 이번 6월에 5명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우리교회에서 처음으로 발달장애인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학습을 받는 것도 우리 교인들이 장애인이 받는 것을 처음 봤어요(연구 참여자, K).

## ② 교회 장애인 부서의 관심과 역할은 확대해야 함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은 교회 장애인 사역이 1주일에 한 번의 짧은 주일예배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영적인 면을 비롯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혹은 직업적인 측면으로까지 관심과 역할을 확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교회가 주일날만 믿음을 가르치면서, 나머지 6일 동안의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했다고 생각하죠. 장애인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케어하고 책임지려면 그냥 세상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담임목사님이… (연구 참여자, K).

예배도 예배지만, 외부에서 하는 것처럼 예배 외에도 외부 활동이라든지, 토요학교처럼, 여건이 된다면 회원들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부서에서 진행을 한다든지, 나들이도 가고, 음악치료라든지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제가 여기서 3명 정도를 장애인 직업시설에 취업을 시켜줬거든요. 그나마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니… (연구 참여자, P).

## (6) 현실적 장벽

### ① 장애인부서는 교회적 관심/지원에서 늘 뒷전임

교회에 장애인 부서가 설치·운영되지만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은 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후순위로 밀려난 나머지 내면적으로는 종종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장애인부서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나 지원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저희도 옛날에도 문제가 있었고, 너무 적은 관심에 사랑부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내었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일은 드물죠(연구 참여자, H).

주일학교에서 가장 먼저 챙겨할 부서는 장애인 부서인데… 제일 소외되고 제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장소나 좋은 장소, 이런 것들은 유년부나 유치부 부서들이 많이… 그나마 이렇게 조그마한 자리라도 감사하죠. 장애인 부서는 항상 마지막에, 이 정도면 안 되겠나? 하는 거죠(연구 참여자, P).

② 장애인부서 교사들의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 부서의 교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이해심, 포용 등 장점도 있지만, 장애 특성과 교육적 이해 등 관련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선생님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그것도 감사한 게, 그래도 연륜이 중요하거든요. 그 분들만의 기도와 스킬이… 경험, 연륜이라는 것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또 아이들 많이 키워 봤잖아요? 결석을 잘 안 하시고… 그렇게 장점인데, 절반은 젊은 집사님, 아니면 장립집사님 아니면, 대개 좀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많잖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일반 주일학교에 많이 가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아쉽죠(연구 참여자, P).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새로운 이론부분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막연하게 지나치시는 분들도 있고, 교사들 중에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구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애들이 가없다고 다 해주시고, 교사로 10년을 일했는데, 아직 아이 특성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좀… (연구 참여자 L).

(7) 요원한 통합예배: 한 지붕 두 가족

① 통합교육에 대한 교화적 편견/무관심이 큼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성도들 간의 통합 예배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더 나아가 편견적인 태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세례를 받은 지가 5, 6년 된 친구들이 한 번도 성찬식에 참여를 못한 것, 또 교회 어떤 중요한 결정 사항을 할 때, 이 친구들은 20살 이상이니까 성인들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니 정교인 인데, 투표권에 대해 여태까지 한 번도 얘기를 한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연구 참여자, L).

통합예배… 일 년에 한 번씩 비장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몇 년 전부터 몇 번 시도를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사랑부 아이들은 할 수 없을거야! 라는 인식 때문에…(연구 참여자, H).

② 의도적이기보다는 의례적 참여 ‘허용’ 수준

또한 교회의 절기나 행사 때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가끔 예배를 함께 드리기는 하지만, 이것이 교회가 (통합)교육적 관점에서 계획적이거나기보다는 해당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히 ‘끼워주는’ 형태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주일학교 다른 부서도 모두가 통합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일자가 1년에 5-6번은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섞이지 않고, 각각 나누어서 앉아서, 사랑부는 사랑부대로 앉아 있는 형태로... (연구 참여자, G).

크리스마스 전야제 때 찬양을 하는데, 저희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는 못하나? 해서 건의를 해서 몇 년 전에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사랑부도 하겠다 해서 했거든요. '우리도 성경암송 할 수 있다!' '우리부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해서... (연구 참여자 H).

## 2. 장애인부서 교사로서의 지원 요구

### (1) 교회적 차원

#### ① 담임 목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현직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들은 교회 장애인 부서의 양적·질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담임목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관건이라고 보았다.

신학대학에 장애인과 관계된 과목을 필수적으로 해야... 그러면 목사님들도 장애인에 대해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애인부서가 활성화 될 텐데...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배에 설교 중에 사랑부에 대해 거의 언급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장애인 부서의 가장 중요한 키(key)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연구 참여자, L).

장애인부서에 현직 특수교사나 전문가들이 좀 더 봉사하도록 하는 데는 아무래도 담임목사님의 인식이나 노력과 관심이 참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광고해야하는데 교회가, 사실 담임목사님이 관심이 없으면 교회도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연구 참여자, H).

#### ② 교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구조적 환경 개선이 급함

본 연구 참여자들은 담임 목회자의 인식에 이어 교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 등 실천적인 면의 개선을 촉구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장애인하고 같이 타면 대개 싫어하고, 나중에 타라고... 노골적으로, 약간 좀 천대하는 느낌... 지적 장애인들을 좀 비하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도 교회 안

에서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 장애인교육이 제일 안 된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연구 참여자, K).

교회에서 장애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교회에서 뭘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이 잘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끔, 그런 장소나 그런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연구 참여자, P).

## (2) 부서적 차원

### ① 장애인 부서에 젊은 교사들이 많이 왔으면...

장애인부서의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들은 젊은 연령층의 교사가 더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된 데로 나이 든 교사들의 풍부한 자녀 양육경험, 포용력과 젊은 교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인식과 이해력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장애인부서가 젊어요. 젊으니까 청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교사로 봉사자로 많이 와서 또래 장애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면... 또 아이들을 케어하다보면 교사들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있고...(연구 참여자, L).

선생님들이 다 각자 알아서 공부공부는 각자에 달려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좀 높으세요. 20년 이렇게 되셨으니까, 높으시고 중간에 또 들어오신 50대, 60대도 많으시고(연구 참여자, H).

### ② 버팀업(Bottom up)식의 변화 요구

장애인 부서의 현직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이 교회 내 장애인 사역의 개선을 위해 소위 하향식(top down)이 아니라 '상향식'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전문성과 의식을 가진 교사들이 교회의 장애인 사역의 필연성을 이해시키고 요구하는 선제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교인들이 이 부서에 대해 잘 모르는 면이 많고... 좀 더 뭔가 장애인 부서가 드러나고, 저희들이 더 해야 하고 저희들의 노력이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목소리를 좀 내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더 밖으로 알리고, 더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연구 참여자, C).



여러 교회는 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주일로 이렇게 드러지고 하더라! 우리도 이 주에는 특송을 하겠다! 해서 작년부터 4월 20일 근접한 주일에는 특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주동자인 셈이죠(연구 참여자, H).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교회 장애인 부서의 교사로 봉사하는 현직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원요구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개인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에 도출된 주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인부서 교사로서의 경험은 자발적 동기, 기피부서, 자긍심·보람, 전문(차별)성, 존재의 미(정체성), 현실적 장벽, 요원한 통합예배(한 지붕 두 가족)이며, 장애인부서 교사로서의 지원요구는 교회적 차원과 부서의 차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주요 논의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참여자들인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 부서에서의 교사를 현직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은사와 소명감으로 알고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환경적 제한성으로 인해 이들의 역량과 자질 등 전문성은 충분히 발휘될 수 없어 활용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인과관계를 형성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회의 ‘부수적’인 특별한 부서로 보는 장애인부에 대한 인식은 다른 주일학교와는 달리 장애 특성상 소통 등 원활한 상호작용이 ‘어렵고, 힘든’ 것으로 보는 정서가 확산되어 있다. 아울러 장애인 부서의 교육은 매우 단순하여 교사로서 특별한 교육적 소양이 요구되지 않는 부서로도 이해할 수도 있다(박명우, 2012: 39, 69-74 ; 김용구, 2014: 71). 이와 같은 장애인부서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은 먼저 교사지원기피 현상을 일으키고, 또한 ‘젊고 유능한’ 교사들보다는 비교적 연령층이 높은 교사들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계속하여 장애인 부서의 교육과 복지적 서비스의 질 저하와 더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적, 양적 정체나 침체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담임 목회자 등 교회적인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이 주원인(김종복, 2005 ; 오영환, 2007: 50 ; 박혜전·김정임·조영길, 2012: 106-109 ; 김성원·허계형, 2017: 148-149)으로도 작용함을 알고, 이에 대한 교회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우리나라 전체 교회에서 장애인부서 설치율은 겨우 0.5% 미만(박명우, 2012: 36 ; 한창희, 2016: 41-43)으로 여전히 턱없이 낮은데, 이는 오늘날 교회가 장애인에 대하여 거의 무관심으로 일

관하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일 수 있다. 특히 교회의 장애인 사역은 아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철저한 성경적 성찰과 실천의지가 선제되어야 한다. 즉, ‘왜 교회는 장애인사역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장애인사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장애인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의미한다.

먼저 교회의 장애인 사역의 당위성과 관련하여 신구약 성경은 매우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다. 성경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평등의 대상(레19:9-10 ; 요13:34-35 등)으로 여길 것을 명령하기도 한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지상사역은 전도, 교육 및 치유로서 수많은 환자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해 영적, 신체적, 사회적 회복을 통하여 전인적 치유사역을 행하셨다(김기홍, 2023: 59-64). 더군다나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대상이요 장차 천국 백성(마4:23 ; 눅14:12-24 등)으로 함께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 뿐만 아니라 장애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으로 언급하시고, 장애를 통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출4:10-11 ; 요9:1-3 등)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전지혜, 2014: 256-257). 이러한 성경적인 올바른 인간(장애인)관의 확고한 정립은 교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장애인 사역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 요소이자 출발점인 것이다(윤경일, 2017: 9-15 ; 박응규, 2020: 76-78).

이어서 교회의 장애인 사역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밝힌 바와 같이 세속적인 기관들과는 달리 장애인을 위한 교회의 주 사역은 영적 구원의 문제에 주력을 해야 한다는 점은 틀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련의 역사적 사건은 결국 인류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교회의 장애인 사역은 영혼 구원 등의 영적 부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제, 치유, 직업적 재활, 사회적 통합, 인식 개선, 여가 활동 등 전(全)생애적인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 마련 및 실행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계윤, 2007: 11-12, 19 ; 박명우, 2011: 73-74 ; 김용구, 2014: 71-76).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장애 치유사역 과정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할 것이다. 즉 이들이 신체적 질병과 장애만 아니라, 영적, 심리·정서적, 사회 통합적인 측면 등을 포함한 온전한 회복, 즉 사회 공동체 속에서 전인적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는 이를 위하여 올바른 인식과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김기홍, 2023: 59-64).

또한 교회의 장애인 사역의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의 구비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장애인부서에서 봉사하는 교사를 비롯하여 교육과정, 교재 및 교구, 편의시설 및 공간, 행·재정적 지원 등의 인적, 물적 자원이 교육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배경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 중에서 이미 많은 선행연구(윤경일, 2017: 59-61 ; 이보영, 2018: 46-49 등)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특히 교사의 교육적, 복지적 영역에서 전문적 자질과 역량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는 우선 장애인 부서 내에서 교수-학습,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 측면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물리적 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하여 장애인 선교사역 등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재고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교회 장애인 사역의 필연성과 관련해서는 신학, 학령기 및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학과 사회복지학 등의 장애인 사역의 내용과 방법 정립에 있어서 초학문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다(박명우, 2011: 69-71). 또한 여기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장애인 사역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가진 담임목회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 경남 및 대구 지역의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 각 3명씩의 경험과 인식을 심층 면담하여 분석한 결과로 이를 일반화하는 데는 지역적, 연구 참여자의 수적인 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에 향후 연구는 교회 장애인 부서가 설치된 다양한 지역과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을 살펴볼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특수교육전공자로서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를 장애인 사역의 전문가 집단으로 보고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는 신학, 특수교육학 및 사회복지학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초학문적 관점에서 연구자로서 참여하여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를 연구대상으로 초점 집단면접(FGI)를 통해 교회의 장애인 부서의 운영 목적, 방법, 내용 및 향후 방향 등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 참 고 문 헌

- 김기흥 (2017). 교회 내 장애인 부서의 운영 실태와 통합교육에 대한 담당교사들의 인식. **신앙과 학문**, 22(4), 35-67.
- 김기흥 (2020). **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 서울: 집문당.
- 김기흥 (2023). 사복음서 속 예수그리스도의 장애인 치유사역에 나타난 통합 교육적 함의. **신앙과 학문**, 28(2), 51-71.
- 김성원·허계형 (2017). 장애통합 사역 지원 요소에 대한 예비 목회자들의 인식. **개혁논총**, 43, 127-155.
- 김요섭 (2007). 교회 장애인 부서 교사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 **기독교교육정보**, 16, 157-180.
- 김용구 (2014). **장애인의 교회교육 접근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김종복 (2005). **현대사회의 장애인의 현실과 한국교회의 역할**.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05대회 발표 자료.
- 남현주 (2015). **교회학교 장애인부 교사의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경험**.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박명우 (2012). **한국 개신교회의 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박응규 (2020). 한국교회의 장애인 사역과 사회참여. **장로교회와 신학**, 16, 53-78.
- 박혜전·김정임·조영길 (2012). 한국 교회의 장애인식 및 장애수용(장애인 편의시설 포함)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17(10), 97-126.
- 오영환 (2007). **장애인의 통합예배 참여에 대한 일반 기독교인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윤경일 (2017). **교회장애인부 주일학교 교사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태도연구**. 석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 이계윤 (1996). **장애인 선교의 이론과 실제**. 안양: 한국특수교육연구소 출판부.
- 이계윤 (2007). 한국교회 장애인사역의 현황과 중장기적 과제. **교회와 사회복지**, vol. 5, 7-29
- 이보영 (2018). **ADHD 아동에 대한 초등교사의 지식과 대처방안**. 석사학위 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이종승 (2009). **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임창덕 (2007). **교회학교 장애인부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들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연구-교회 장애인부 교사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 전지혜 (2014). 장애학적 관점에서의 사회변화와 한국 장애인 선교의 방향. **선교와 신학**, 34, 239-267.
- 천상화 (2010).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통합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 최대열 (2015). **성서, 장애 그리고 신학**. 서울: 나눔사.
- 한창희 (2016). **발달장애인 가족의 목회적 돌봄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Christian, M. & Udo, S. (2014): *Behinderung. Chronik eines Jahrhunderts*.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Lena, K. (2008): *Die 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im mittelalterlichen Europa*. München: GRIN Verlag.

Mattner, D. (2000). *Behinderte Menschen in der Gesellschaft. Zwischen Ausgrenzung und Integration*. Stuttgart: Kohlhammer.

# 현직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들의 교회 장애인부서 교사로서의 봉사경험과 지원요구 탐색

## Exploring the Experiences and Support Needs of Current Special Educators and Social Workers Working in Disability Ministries in Churches

김기흥 (부산교육대학교)

### 논문초록

본 연구는 교회 장애인 부서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현직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들의 경험과 지원요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산, 대구 및 경남 지역의 연구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연구대상자들의 경험에서는 7개의 범주와 14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연구대상자들의 지원요구에서는 2개의 범주와 4개의 하위 범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두 가지 주요 논의사항을 다루었다. 첫째, 교회의 여러 환경적 제한으로 인하여 연구대상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회는 장애인 사역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해 확고한 성경적인 인식과 실천의지를 정립하여야 한다. 즉 교회의 장애인 사역의 당위성, 장애인 사역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장애인 사역의 방법 등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기독교회, 장애인 부서, 특수교사, 사회복지사